

황선영의 사진, 이미지 존재론

-<어긋난 풍경>전, 문화공간 양

1.

황선영 작가는 '문화공간 양'의 레지던시 작가로 입주하여, 인근의 화북공업지역을 관찰하며 '세상에 없는 풍경'을 만들었다. 작가는 프랑수와 줄리앙의 저서 『풍경에 대하여: 풍경으로 살아가기, 또는 이성이 지나친 것』을 떠올리며 '삶이 끊임없이 활력을 얻는 근원'이 바로 풍경이라는 점을 환기시킨다.

프랑수와 줄리앙은 중국학 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프랑스의 동양학자이다. 풍경에 대한 줄리앙의 성찰은 중국 산수화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풍경에 관한 줄리앙과 같은 인식은 서구의 17-8세기 '장면'을 바라보는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줄리앙은 삼원법(三遠法)에 따라서 공간을 구성하는 것, 자연의 한 요소로 인간을 이해하는 우주적인 관점 그리고 이런 태도를 바탕으로 산수화(山水畫)를 제작하는 방식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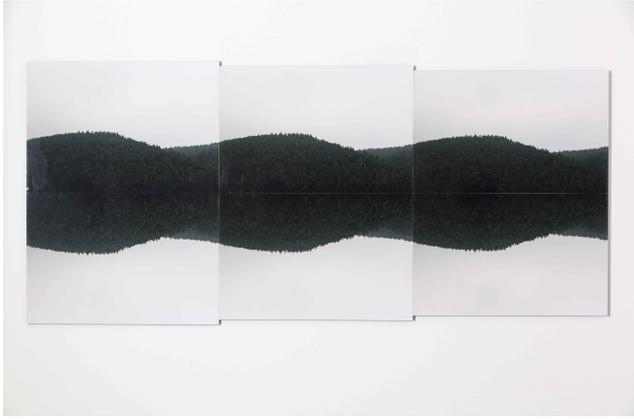


화북공업지역

작가가 줄리앙을 떠올리며 채취한 '화북공업지역'의 이미지들이 이번 전시인 '어긋난 풍경'을 구성한다. <어긋난 풍경>은 '형식적으로도 내용으로도 이질적인 것들이 한 몸에 들어 있는' 풍경이다. 황선영은 클로즈업으로 이미지를 건진 다음 (작가는 자신을 '이미지 사냥꾼'이라 말한다), 그 이미지로 수 없는 배열을 실험한다. 클로즈업은 이미지 주변의 이야기를 털어내는 방식이다. 이야기를 털어낸 이미지는 사실상 '지각적인 인식'의 대응물이자 작가 지각의 연장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수집된 조각들이 반복적이면서도 우연적으로 배열을 바꾸며 나열되다가 한순간 세상에 없는 풍경에 도달한다.

작가의 말처럼 반복적인 배열 속에 태어난 풍경은 미리 예견된 의미나 내장된 메시지가 없다. 이미지가 배열되면서 형식을 만들고 그것으로 풍경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긋난 풍경'은 기대나 규정도 없이 의미의 텅 빈 장소로 관객의 눈길을 기다린다. 어떤 의미든 관객과의 만남에서 풍경은 또 새로이 시작된다.

황선영은 사진 매체가 갖는 특성에 매력을 느낀다. 현실에 대한 기록이면서도 동시에 직접적인 기록의 흔적을 넘어서는 사진의 '같음과 다름의 차이'가 황선영 작가가 애착을 갖는 지점인데, 바로 이러한 차이가 '어긋난 풍경'의 제작방식과 그 결과물, 작품에 그대로 드러난다.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배열하면서도 배열의 기준으로 인해 다른 부분이 들쭉날쭉 이어진다. 지붕선이 맞아떨어지는가하면 바로 아래 바닥 선이 맞지 않는다. 오류의 능선을 맞추



오름

다보면 이미지가 놓인 화면의 높낮이가 맞지 않는다. 작품은 '맞고 맞지 않음'이 함께 모여 이미지 풀라주가 전체 풍경을 이루는 것이다. 한눈에 자연스러워 보이는 듯해도 들여다보면 맞지 않는 차이^의 선들이 이어져 있다. 반복 속에 증식되고 있는 형식은 반복되는 모티프를 뻗히 알면서도 그 이미지의 굴레를 넘어서게 한다. 프렉탈의 변이이자 손으로 만든 프렉탈이고 할까. 황선영 사진작업은 반

복적인 배열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풍경 속에 다른 길을 내는 작업이다.

반복적인 작업방식은 황선영의 작업에 시종일관 이어져 온 방식이다. 자연물이든 인공물이든 대상이 무엇이든 그녀의 이미지는 지각의 연장물로서 별도의 시공간을 만들어 내는데, 이 점이 황선영 작품의 중심에 놓여 있다.

2.

제주도의 화북공업지역은 화북포구가 있는 고장이다. 예전에는 제주목 관아로 가기 위해 이 포구에 내렸다고 한다. 현재 제주항보다 훨씬 큰 주요 항구였던 것이다. 화북공업지역은 쾌적한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제주도 전역에 산재해있던 제조업체를 한 곳에 입주시키기 위해 1987년에 조성된 단순한 공업지역이다.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공업 지역이면서도 거리 풍경은 다른 세상의 시간일까, 한가한 시간이 흘러간다. 대형건물 때문인지, 확 트인 하늘 때문인지 이 지역은 시간도 커다란 블록처럼 갇혀있다. 거대한 공구상이나 레미콘 공장 같은 건물들, 폐차장과 한쪽 면에 가지런히 놓인 빨강버스들, 다이소의 대형 물류 차량 등이 거리를 메우고 있고 드문드문 보이는 작은 밥집에서 이 공간은 생기를 얻고 있다. 이 모두를 떠받치는 하늘과 함께 화북지역은 초현실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작가는 이 시공(時空)의 블록을 가르며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혼재한 어느 찰라를 포착하여 이미지를 끌어 낸 것이다. 작가는 '제주의 광활한 하늘을 배경으로 단순하면



화북공업단지#2

서도 조형적인 형태의 공장지대'에서 '기계적이며 기하학적인 산업미의 매력에 사로잡히면서 '어느 날 물류창고 입구에 가려진 천막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바람을 타고 풍.경.이 되는 순간'이었다고 한다. 인공물이면서도 동시에 유사귀 같은 자연물을 떠올리는 이 순간의 이미지 존재가 바로 작품이 된다.

이번 전시의 특징 중 하나는 사운드 미디어 작가와 협업한 것이다. 이현태 작가와 협업하여 전시한 단채널 영상작업이다(황선영, 이현태, <어긋난 풍경>, 단채널 영상). 이현태는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영상 속에서 이미지와 소리를 가져와 컴퓨터로 작곡하고



황선영, 이현태, 어긋난 풍경, 단채널영상

연주하는 작가이다. 우연적이며 반복적인 황선영의 작업방식과 상통하는 면이 있어 두 작가는 의기투합하여, 단채널 영상 작품을 제작했다. 이현태 작가는 하늘과 바다가 반반 차지하는 황선영 작가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그 이미지를 회전하고 다르게 배치하며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 낸다. 이현태는 이를 유튜브에 올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한 자리에 불러낸다.

15개의 이미지가 90도씩 회전하

며 서로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며 각각의 이미지들은 소리를 갖는다. 회전할 때마다 전체적인 이미지 구성과 패턴은 달라진다. 이현태와 협업한 <어긋난 풍경>은 이미지로 작곡한 이미지 연주곡이다. 15개 각각의 이미지가 회전하면서, 전체 하나의 이미지를 이루지만, 전체는 각 이미지가 회전할 때마다 다른 전체로, 그리고 다른 음악으로 연주되고 전시되는 영상작품인 것이다. 사진에서 영상으로, 협업으로 확장한 이 작품 역시 반복 속에 울리는 영상의 존재함, 그 존재의 소리이다.

황선영은 이렇게 사진을 통해 '차이의 풍경이자 반복의 풍경'을 생성하면서, 세상에 없는 풍경으로 풍경의 감각을 제시한다. 풍경의 감각, 이것은 이미지 자체, 이미지 존재의 감각에 다름 아니다.

작가 황선영은 홍익대학교에서 도예를 전공하고, 파리 1대학에서 조형예술학을 전공하였다.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창작과 강의에 열중하고 있다.

2023.10.

남인숙(미술평론가/미학박사)